

NAOKOL 2009 자료

김 흥 규

조선 후기 시조와 여성 체험, 그리고 ‘俚諺’

‘불안한 사랑’ 모티프 시조 추가 자료

1. 짝사랑	1
2. 새 님	2
3. 남의 님	3

李鈺의 문학론과 ‘이언’

이언인: 일난	5
이언인: 이난	7
아조	10
염조	13
탕조	15
비조	17

사설시조와 여성 형상

0. 도입부 설명용 작품	20
1. 미혼 여성	20
2. 가족간의 갈등	21
3. 남편과 아내	22
4. 그리움, 기다림	23
5. 욕망의 회극	25
6. 숨기는 情事	26
7. 말장난: 장사치와 여인의 문답	27

박지원, 열녀함양박씨전	29
--------------	----

* NAOKOL 워크샵에서의 소주제와 자료 활용에 관하여는 31면의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불안한 사랑’ 모티프 시조 추가 자료

* 여기에 실린 작품은 논문 <조선 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 모티프와, ‘연애 시대’의 전사>에 인용하고 남은 자료 중 반쯤에 해당하는 24수를 간추린 것이다.

1. 짝사랑

閣氏님 츄오신 칼이 一尺劔가 二尺劔가
龍泉劔 太阿劔에 匕首 短劔 아니어든
엇더타 丈夫의 肝腸을 구뵈구뵈 굶느니.

#72, 570, 81. <*병가 997> []=/동국/병가/영류/원가/원국/원규/원동/원박/원불/원육/원일/원하/
원황/청영/청육/해박/해악/협률/화악/흥비

들은 붉고 브름은 춘디 밤은 길고 잠 업식라
넛 슝 이르기를 相思곳 흐면 病 든다 흐디
病 드러 못 살 人生이니 그를 슬허 흐노미라.

#897, 7760, 1104. <*병가 717> []=/병가

브람 부러 쓸어진 남기 비 오다 삭시 나며
넛 그려 든 病이 藥 먹다 허릴소냐
아마도 널노 든 病이니 네 곱칠가 흐노라.

#1271, 11150, 1589. <*병가 821> []=/남태/대동/병가/시조/약서/원가/원국/원규/원동/원박/원
불/원육/원일/원하/원황/조사/청육/해악/협률/화악

北風의 이운 남기 춘 비 맛다 새 넛 나며
相思로 드른 병이 藥을 먹다 도홀소냐
더 넛아 널노 든 병이니 네 곱칠가 흐노라.

#1509, 13260, 1891. []=/고금

食不甘 寢不安흐니 이 어닌 모진 病고
相思 一念에 넛 그린 트시로다
저 넛아 널노 든 병이니 네 곱칠가 흐노라.

#2045, 17790, 2541. <*청육 913> []=/가보/남태/대동/시가/시조/약서/여가/여국/여규/영류/원
일/청영/청육

神農氏 嘗百草홀 제 萬病을 다 고치되
相思로 든 病은 百藥이 無效]로다
저 넛아 널노 든 병이니 네 곱칠가 흐노라.

#2049, 17830, 2547. <*병가 567> []=/근약/남태/동국/병가/시가/시여/시요

저 건너 廣窓 놓은 집의 머리 도흔 閣氏님
初生 반달 꺾치 비취지나 마로렴은
곶쪽에 다 석은 肝腸이 봄눈 스 듯 흐여라.

#2901, 25410, 3584. <*병가 1021> []=/병가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細雨 | 되어
님 즈는 窓 빛기 불거니 뿌리거니
날 잇고 김히 든 즘을 씨와 불가 흐노라.

#3623, 31820, 4522. <*병가 31, 金尙憲> [金尙憲]=/병가 []=/가보/가요/고금/근악/대동/시가/
시요/악서/여가/여국/여규/여륜/여박/여불/여악/여요/여육/여하/여황/청연/청영/청육/홍비

남의 입 거러 두고 속 몰나 쓴는 익와
정든 입 이별히고 보고십퍼 그린 익를
아마도 분슈흐면 그린 익가 나으련이.

#3984, 0, 741. [李世輔]=/풍대

왔다고 띄여 마소 날 왔다고 띄여 마소
님 둔 님 불아 오기 내 윈 줄 알것마는
님이야 날 싱각홀라마는 내 못 니저 불아 왔네.

#5151, 0, 5462. []=/해수

2. 새 님

브른갑이라 흐늘로 날며 두더쥐라 싹호로 들라
금종달이 鐵網에 걸려 플덕플덕 프드덕이니 놀다 길다 네 어드로 갈다
우리도 새 님 거러 두고 풀더겨 불가 흐노라.

#1262, 11090, 1584. <*청진 479> []=/병가/시가/청영/청진/해박

屏風에 압니 좃스동 불어진 괴 글이고 그 괴 알피 죠고만 麝香쥐를 그렛씬이
애고 죠 괴 샷썰은 양햏야 글임 쥐를 잡으랴 쫓니는고여
울이도 새 님 걸어 두고 좃니러 불까 흐노라.

#1434, 12540, 1787. <*해일 538> []=/가보/남태/병가/시가/시요/여가/여국/여규/여륜/여박/여
불/여악/여요/여육/여하/여황/청가/청연/청영/청육/해일/홍비

너추리 너추리여 얼운자 박너추리아
어인 너추리완티 손을 주어 담을 넘는
우리도 새님 거러두고 손을 줄가 흐노라.

#2195, 19113, 858. []=/근악

어른자 너출이야 에어른자 박넛출이야
어인 넛출이 담을 너머 손을 준다

우리도 늙의 님 거러두고 손 주어 불가 흐노라.
#2194, 19112, 0. []=/청영

月黃昏 期約을 두고 둘 우도록 아니 온다
식 님을 만났는지 舊情의 잡히인지
아모리 一時 夤緣인들 이티도록 소기랴.
#2559, 22330, 3148. <*병가 520, 朴俊漢> [朴俊漢]=/병가

3. 남의 님

괴여 들고 괴여 나는 집이 핼도 필샤 三色 桃花
어른자 범나뵤야 너는 어니 녀나는다
우리도 남의 님 거러 두고 녀나러 불가 흐노라.
#453, 3940, 554. <*병가 992> []=/가보/동국/병가/청연/청육/홍비

南山에 눈 늘니 양은 白松鵲이 죽지 씨고 당도는 듯
漢江에 비 쏜 양은 江山 두루미 고기 물고 녀느는 듯
우리도 남의 님 거러 두고 녀느러 불가 흐노라.
#594, 5130, 710. <*병가 1024> []=/가보/병가/여가/여국/여규/여률/여박/여불/여악/여요/여육/
여하/여황/영류/원가/원국/원규/원불/원육/원일/원하/청가/청영/청육/해악/협률/화악

넉히 도타 흐고 남의 님을 덕양 보랴
흔 열흘 두 닷시와 여드레만 보고 지고
흔 들도 설흔 날이니 쏘 이틀만 보고지고.
#701, 6090, 846. <*병가 712> []=/병가/청육

스람마다 못할 것은 남의 님씩다 情 드러 늦코 말 못흐니 익연흐고 통스정 못흐니 나
죽깃구나
꽃이라고 쏘어를 내며 녀히라고 홀터를 너며 가지라고 썩거를 너며 히동청 보라미라고 제
밥을 가지고 곳여를 냐가 다만 秋波 여러 번에 남의 님을 후러를 내여 집신 간발흐고
안인 밤중에 월장 도쥬흐야 담 녀어 갈 제 식이비 귀먹쟁이 잡녀석은 남의 속너는
조금도 모로고 안인 밤중에 밤스람 왔다고 소리를 칠 제 요 너 간장이 다 녹는구나
츄으로 네 모양 그리워서 나 못 살게네.
#1567, 13760, 1956. []=/약고

올가 올가 흐여 기다려도 아니 온다
툭이 우러거니 밤이 언마 나마시리
막읍아 놀니지 마라 님 둔 님이 오던야.
#2434, 21230, 3002. []=/고금

엇그제 이별흐니 츄아 못 이져 쏘 다시 가서

식롭고 간절흔 마음 피츄 잇고 노즈 흐니
저 임은 식 슝 거러 두고 아니 본 체.

#4539, 0, 2839. []=/악나

품 안의 임 보닌 후의 펼친 이불 모아 덮고
다시 누어 싱각흐니 허황헌 일리로다
아마도 인간지란은 남의 님인가.

#4998, 0, 4415. [李世輔]=/풍대

왔다고 띄여 마소 날 왔다고 띄여 마소
님 둔 님 불러 오기 내 윈 줄 알것마는
님이야 날 싱각홀라마는 내 못 니저 불러 왔네.

#5151, 0, 5462. []=/해수

窓 빛긔 窓 치난 任아 아모리 窓 치다 들오라 흐라
너도곤 勝흔 任을 이기 거러 뉘엿찌든
더 任아 날 보랴 흐시거든 모리 된날 오시쇼.

#3111, 27220, 3839. <*청육 544> []=/청육

이옥의 문학과 <이언>

* 이옥의 연작시 <이언>은 몇 종류의 사본으로 전해지는데, 여기에 전제한 것은 이들을 校合하여 <이옥 전집>(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2001)에 수록한 텍스트이다. 번역 역시 이 책의 것을 옮기되, 표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가했다. <이언>을 위해 이옥은 자기 변호의 문학적 선언으로 <이언인: 삼난>을 썼다. 그 중에서 <일난, 이난>을 함께 수록한다.

이언인(俚諺引)

● 첫 번째 비난(一難)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그대의 이언(俚諺)은 무엇하러 지은 것인가? 그대는 어찌서 국풍(國風)이나 악부(樂府), 사곡(詞曲) 같은 작품을 짓지 않고서 꼭 이 이언을 지어야만 했는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따로 주관하는 자가 있어서 그렇게 시킨 것이니, 내가 어찌 국풍, 악부, 사곡 같은 시를 짓고 나의 이언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풍이 국풍된 까닭을 알고, 악부가 악부된 까닭을 알며, 사곡이 국풍이나 악부가 되지 않고 사곡 된 까닭을 알면 내가 이언을 지은 까닭 또한 알 것이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저 국풍, 악부, 사곡과 그대의 이언이라는 것들이 모두 그 작자의 지은 바가 아니란 말인가?”

내가 대답했다. “작가가 어찌 감히 그것들을 짓겠는가? 작자로 하여금 그렇게 짓도록 만든 까닭이 그것들을 지은 것이다. 이는 누구인가? 천지만물이 바로 그것이다. 천지만물에는 천지만물의 성질이 있고 천지만물의 형상이 있으며 천지만물의 빛깔이 있고 천지만물의 소리가 있다. 이를 묶어서 살펴보면 천지만물은 하나의 천지만물이지만, 나누어서 말하자면 천지만물은 각기 서로 다른 천지만물들이다. 바람 부는 숲의 낙화가 비 오듯이 어지러이 흩날려 쌓이되, 그것을 분별하여 살펴보면 붉은 꽃잎은 붉고 흰 꽃잎은 희다. 하늘나라의 음악이 장엄하게 어울려 울리되, 자세히 들어보면 현악기는 현악기의 소리를 내고, 대나무 악기는 대나무 악기의 소리를 내서, 만물이 제각각의 빛깔과 제각각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 한 별의 온전한 시는 자연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으로, 팔괘를 그리고 書契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갖추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풍·악부·사곡을 지은 사람이 감히 스스로 한 일이라 자임하지 못하고, 또한 감히 서로 도습하여 본뜨지 못하는 까닭이다.

천지만물과 작자 사이의 관계는 꿈을 통하여 실상을 드러내고 키(箕, 쓰레반기?)를 빌어서(?) 정을 통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천지만물이 어떤 사람을 빌어서 시가 되어 나오려 할 때에는 물 흐르듯이 귀와 눈을 따라 들어가 단전 위에 머무르다가 줄줄이 잇달아 입과 손끝으로 따라나오는 것이니, 이는 그 사람의 의지적 행위가 아니다. 예컨대 이는 석가모니가 우연히 공작새의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공작의 꿈무니로 다시 나온 것과 같다. 나는 모르겠거니와, 이는 석가모니의 석가모니인가 공작새의 석가모니인가? 이런 까닭으로 그것을 지은 사람은 천지만물의 통역관이며, 또한 천지만물의 화가일 따름이다.

역관이 남의 말을 통역할 때 나하추(納哈出)의 말을 통역하면 북변의 말이 되고, 마테오리치(利瑪竇)의 말을 통역하면 서양의 말이 되는 것이니, 그 소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감히 바꾸고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畫工이 사람의 형상을 그림에 있어서, 맹상군을 그린다면 아담하게 작은 모습을 그림

터이고, 거무패를 그린다면 곧 흰칠하고 늙은 모습으로 그리게 된다. 그 모습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감히 바꾸는 바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시를 짓는 이치가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대체로 논하건대, 만물이란 만 가지 물건이니 하나로 묶을 수 없다. 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서로 같은 하늘이 하루도 없으며, 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서로 닮은 땅이 없다. 이는 마치 천만 사람이 각기 저마다 천만 가지 이름을 가졌고, 일년 삼백일에 또 각기 삼백 가지 서로 다른 일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역대로 하(夏)·은(殷)·주(周)·한(漢)·진(晉)·송(宋)·제(齊)·양(梁)·진(陳)·수(隋)·당(唐)·송(宋)·원(元)을 내려왔지만, 한 시대는 또 다른 한 시대와 같지 않아서 각기 저마다 한 시대의 시가 있었다. 列國을 보아도 주(周)·소(召)·패(邶)·용(鄘)·위(衛)·정(鄭)·제(齊)·위(魏)·당(唐)·진(秦)·진(陳)이 있었으니, 한 나라는 또 다른 한 나라와 같지 않아서 각기 저마다 한 나라의 시가 있었다. 삼십 년이면 세상이 변하고 백리를 가면 풍속이 같지 않다. 어찌하여 대청 건륭년간에 태어나 조선 한양성에 살면서 짧은 목을 길게 늘이고 가는 눈을 크게 부릅떠서 망령되어 국풍·악부·사곡 짓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가?

나는 이미 이와 같음을 보았거니와, 이러하다면 나는 진실로 내 자의에 따라 짓는 바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저 유구한 천지만물은 건륭년간이라 해서 혹 하루라도 있지 않을 때가 없으며, 오직 저 다채로운 모습의 천지만물은 한양성 아래에서도 혹 한 곳이나마 따르지 않는 곳이 없다. 또한 나의 귀, 눈, 입, 손도 내가 용렬할지언정 혹 한 부분이라도 옛사람에 비해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또한 내가 작품을 짓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다만 이언을 짓고 감히 ‘도요(桃夭)’, ‘갈담(葛覃)’ 같은 국풍류 작품을 짓지 못하며, ‘주로(朱鷺)’와 ‘사비옹(思悲翁)’ 같은 악부시를 또한 짓지 못하고, 아울러 ‘촉영요홍(燭影搖紅)’과 ‘집련화(蝶戀花)’ 같은 사곡을 또한 감히 짓지 못하게 된 까닭이다. 이것이 어찌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인가? 이것이 어찌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란 말인가?

다만 부끄러운 것은 천지만물이 나를 통해 포착되고 그려지는 것이 옛사람에게서 그러했던 경지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니, 이는 곧 내 잘못이다. 이에 이언(俚諺)의 여러 가락을 감히 국풍이나 악부 또는 사곡이라 하지 못하고, 이미 ‘이(俚)’라 하고 또 ‘언(諺)’이라 하여 천지만물에게 사죄하게 된 것이다.

나비가 날아서 학령을 지나치다가 그 쓸쓸하고 야윈 모습을 보고 묻기를 ‘그대는 어째서 매화의 흰색이나 모란의 붉은색 혹은 복숭아와 오얏의 분홍색이 되지 못하고 하필이면 이런 황색이 되었는가?’ 하니, 학령이 말했다. ‘이것이 어찌 내 마음대로 한 것인가? 상황[時]이 곧 그렇게 만든 것이다. 내가 상황에 대해서 어찌하겠는가?’

그대 또한 어찌 나에게 나비가 되려는가?”

● 一難

或問曰：“子之俚諺，何爲而作也？子何不爲國風爲樂府爲詞曲，而必爲是俚諺也歟？”余對曰：“是非我也，有主而使之者。吾安得爲國風樂府詞曲，而不爲我俚諺也哉？觀乎國風之爲國風，樂府之爲樂府，詞曲之不爲國風樂府，而爲詞曲也，則我之爲俚諺也，亦可知矣。曰：“然則，彼國風與樂府與詞曲，與子之所謂俚諺者，皆非作之者之所作歟？”

曰：“作之者，安敢作也？所以爲作之者之所作者，作之矣。是誰也？天地萬物，是已也。天地萬物，有天地萬物之性，有天地萬物之象，有天地萬物之色，有天地萬物之聲。總而察之，天地萬物，一天地萬物也；分而言之，天地萬物，各天地萬物也。風林落花，雨樣紛堆，而辨而視之，則紅之紅，白之白也；勻天廣樂，雷般轟動，而審而聽之，則絲也絲，竹也竹。各色其色，各音其音。一部全詩，出稿於自然之中，而已具於畫八卦造書契之前矣。此國風樂府詞曲者之所不敢自任，不敢相襲也。天地萬物之於作之者，不過托夢而現相赴筭而通情也。故其假於人，而將爲詩也，溜溜然從耳孔眼中入去，徘徊乎丹田之上，續續然從口頭手頭上出來，而其不干於人也。若釋迦牟尼之偶然從孔雀口中入腹，須臾向孔雀尻門復出也。吾未知釋迦牟

尼之 釋迦牟尼耶? 是孔雀之釋迦牟尼耶? 是故, 作之者, 天地萬物之一象胥也, 亦天地萬物之一龍眠也. 今夫譯士之譯人之語也, 譯納哈出, 則爲北蕃之語; 譯利瑪竇, 則爲西洋之語. 不敢以其聲之不慣, 而有所變改焉. 今夫畫工之畫人像也, 畫孟嘗君, 則爲眇小之像; 畫巨無霸, 則爲長狄之像. 不敢以其像之不類, 而有所推移焉, 何以異於是?

蓋嘗論之, 萬物者, 萬物也, 固不可以一之, 而一天之天, 亦無一日相同之天焉; 一地之地, 亦無一處相似之地焉. 如千萬人, 各自有千萬件姓名; 三百日, 另自有三百條事爲, 惟其如是也. 故歷代而夏殷周也漢也晉也宋齊梁陳隋也唐也宋也元也, 一代不如一代, 各自有一代之詩焉; 列國而周召也邶鄘衛鄭也齊也魏也唐也秦也陳也, 一國不如一國, 另自有一國之詩焉. 三十年而世變矣, 百里而風不同矣. 奈之何生於大清乾隆之年, 居於朝鮮漢陽之城, 而乃敢伸長短頸, 瞋大細目, 妄欲談國風樂府詞曲之作者乎? 吾既日見, 而其如是, 如是也, 則吾固不可以有所作矣. 猶彼長壽之天地萬物者, 不以乾隆年間, 而或一日不存焉; 惟彼多情之天地萬物者, 不以漢陽城下而或一處不隨焉; 亦吾之耳之目之口之手也, 不以吾之庸庸, 而或一物不備於古人焉, 則幸哉幸哉! 此吾之亦不可以不有所作者也. 亦吾之所以只作俚諺, 而不敢作桃夭葛覃也, 不敢作朱鷺思悲翁也, 并與燭影搖紅蝶戀花, 而亦不敢作者也. 是豈我也哉? 是豈我也哉? 所可慙者, 天地萬物之所於我乎徘徊者, 大不及古人之所以徘徊天地萬物者, 則此則我之罪也. 而亦俚諺諸調之所以不敢曰‘國風’曰‘樂府’曰‘詞曲’, 而既曰‘俚’, 又曰‘諺’, 以謝乎天地萬物者也. 蝴蝶飛而過乎鶴翎, 見其寒且瘦, 問之曰: ‘子何不爲梅花之白牡丹之紅桃李之半紅半白, 而必爲是黃歟?’ 鶴翎曰: ‘是豈我也? 時則然矣, 於時何哉?’ 子亦豈我之蝴蝶也哉?”

● 두 번째 비난(二難)

어떤 이가 말했다. “그대는 천지만물이 그대에게 들나들어서 그대의 이언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대의 천지만물이 오직 한 두 가지에 그치는 것인가? 어째서 그대의 이언은 다만 붉은 연지나 치마 혹은 비녀와 같은 여성들의 일에만 미치고 있는가? 예(禮)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옛사람이 말했거늘, 그런데도 이렇듯 태연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별떡 일어나 얼굴을 고치고 무릎 꿇고 앉아 사죄하며 말했다. “선생께서 가르치신 뜻이 훌륭하십니다. 제자가 잘못했으니, 서둘러 불사르십시오. 하지만 제자가 가만히 선생님에게 청할 것이 있으니, 선생께서 마침내 가르쳐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감히 묻사오니, 시전(詩傳)이란 어떤 것입니까?”,

“경전(經典)이다.”

“누가 지었습니까?”

“당시의 시인(詩人)이다.”

“누가 모은 것입니까?”

“공자이다.”

“누가 주를 달았습니까?”

“집주(集註)는 주자(朱子)가 하였고 전주(箋註)는 한나라의 유학자들이 하였다.”

“그 대강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각에 사특함이 없음이다.(思無邪)”

“그 효용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교화하여 선(善)을 이룸이다.(教民成善)”

“주남과 소남은 무엇입니까?”

“국풍이다.”

“말하는 바는 대체로 무엇입니까?”

“거의가 여자들의 일이다.”

“모두 몇 편이나 됩니까?”

“주남 11편과 소남 14편이다.”

“그 가운데 여자들의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은 몇 편입니까?”

“‘토저(兔菹)’와 ‘감당(甘棠)’ 등 모두 5편 뿐이다.”

“그렇습니까? 이상합니다. 천지만물이 다만 분 바르고 치마 입고 비녀 꽂는 여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입니까? 어째서 옛날의 시인들은 예(禮)가 아니면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말라는 것을 꺼리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나그네여, 그대는 그 까닭을 들어 보겠는가? 여기에는 이런 까닭이 있다.

무릇 천지만물을 관찰함에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사람을 보는 데에는 정(情)보다 묘(妙)한 것이 없고, 정을 보는 데는 남녀의 정을 보는 것보다 진실된 것이 없다. 이 세상이 있으며 이 몸이 있고, 이 몸이 있으며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있으며 곧 이 정이 있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이를 보면 그 마음의 사악함과 올바름을 알 수 있고, 사람의 어짊과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일의 득과 실을 알 수 있고, 그 풍속의 사치스러움과 검소함을 알 수 있고, 그 풍토의 후함과 척박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집안의 흥함과 쇠함을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평화로움과 어지러움을 알 수 있고, 그 시대의 타락함과 융성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대개 사람이 정(情)이란 혹 기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기쁜 체 하거나, 성나지 않았으면서 성난 체 하고, 슬프지 않으면서 슬픈 체 하기도 한다. 즐겁거나, 슬프거나,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거짓으로 꾸며 즐겁고, 슬프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정(情)의 참모습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오직 남녀간의 일은 인생의 본래적인 것이며, 하늘의 도리와 자연의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례 때 푸른 술잔에 붉은 화촉으로 혼인하여 서로 인사하고 맞절하는 것도 또한 진실된 정이요, 향기로운 규방에서 상자에 수를 놓는 것이나 이리마냥 싸우고 다투며 성내는 것도 또한 진실된 정이다. 비단 주렴과 옥난간에 기대어 눈물 흘리며 자나 깨나 사모하는 것 또한 진실된 정이요, 황금에 웃고 옥구슬에 노래하는 것 또한 진실된 정이다. 원앙금침의 아름다운 무늬에 기대어 있는 것도 진실된 정이며, 서리 내린 다듬잇돌과 빗속의 등잔을 벗하여 한을 품고 원망을 가슴에 묻는 것 또한 진실된 정이며, 달 밝은 밤 꽃떨기 아래서 옥패를 주고 향을 훔치는 것 또한 진실된 정이다. 오직 이 한 종류의 참된 정이야말로 어느 한 구석도 진실되지 아니한 곳이 없다.

가령 단정하고 정일(貞一)하여 다행히 그 정도(正道)를 얻은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참된 정이요, 방자하고 편벽되며 나태 오만하여 불행히도 그 올바름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또한 참된 정이다. 오직 그것들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정도를 얻었을 때는 본받을 만하고, 그 정도를 잃었을 때에는 또한 경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참된 것이라야 본받을 수 있고, 참된 것이라야 경계가 된다. 그러므로 그 마음, 그 사람, 그 풍속, 그 풍토, 그 집안, 그 국가, 그 시대의 정을 또한 이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니, 천지만물에 대한 관찰도 이 남녀에서 살피는 것보다 더 진실된 것이 없다.

이것이 시경 국풍의 ‘주남’과 ‘소남’ 25편 가운데 남녀의 일을 노래한 20편이 있게 된 까닭이요, 또한 ‘위풍’ 39편 가운데 남녀의 일이 37편이 있게 된 까닭이며, ‘정풍’ 21편 가운데 남녀의 일이 16씩이나 많게 된 까닭이다. 이것이 또한 당시의 시인들이 예가 아님에도 듣고 보고 말하기를 꺼리지 않았던 까닭이며, 또한 위대하고 지극한 성인인 공부자가 이것들을 취한 까닭이며, 모씨(毛氏)·정현(鄭玄)·주자(朱子) 등 훌륭한 유학자들이 전주하고 집주한 까닭이며, 또한 그대가 말하는 바 ‘사무사(思無邪)’하고 ‘교민성선(教民成善)’한다는 것이다.

그대여 어찌 모르는가? 저 예가 아닌 것을 듣는 것이 장차 예가 아닌 것을 듣지 않으려는 것임을, 예가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장차 예가 아닌 것을 보지 않으려는 것임을, 예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장차 예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것임을. 하물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모두 다 예에 어긋난 것이 아님에랴.

이런 까닭으로 나는 말한다. 시의 정풍(正風)과 음풍(淫風)은 시가 아니라 곧 춘추(春秋)라고. 세

상에서 음사(淫史)라고 일컫는 ‘금병매(金瓶梅)’나 ‘육포단(肉蒲團)’ 같은 부류도 또한 모두 음사가 아니다. 그 작자의 근본 생각을 되짚어 보면 이 작품들을 정풍, 음풍이라 일컬어도 불가할 것이 없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는 이런 이치가 있다. 여자는 치우친 성품을 지녔다. 그 환희, 우수(憂愁), 원망, 학랑(謔浪)이 진실로 모두 정(情) 그대로 흘러나와 마치 허끝에 바늘을 감추고 눈썹 사이에서 도끼가 노는 것과 같음이 있으니, 사람 중에 시의 경지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여자보다 더 묘한 것이 없다. 부인(婦人)네 들은 더욱 그러하여서, 그 태도와 언어, 복식, 거처가 또한 모두가 끝가는 데까지 가게 되어, 마치 잠속에서 피꼬리 소리를 듣고 취한 뒤에 복사꽃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데가 있다. 그러하니 사람 중에서 시의 재료를 지닌 것으로는 부인네들보다 풍부한 것이 없다.

아아, 비록 그 묘하고 풍부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다루는 이가 마치 봉황지(鳳凰池)에 고상한 음악에만 도취된 사람이라면 어느 겨를에 여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또한 푸른 산에 오래도록 들어앉아 원숭이와 학(鶴)을 벗삼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족히 이에 미칠 수 있겠는가? 이학(理學)에 몰두하고 바람과 달만을 읊조리는 사람이라면 어찌 자질구레하게 여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술독에 빠진 채 화류(花柳)에 취하여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어찌 여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세상은 이런 것도 아니며, 저런 것도 아니다. 그 시대를 보면 연화태평(煙花太平) 속에 즐겁고 번잡한 좋은 세계요, 그 땅을 보면 화려한 장안에 시끌벅적한 큰 도회지이며, 그 사람을 보면 붓과 먹을 벗하여 여러 해 동안 흥건히 고인 물처럼 답답하게 보내는 한가로운 생애이다. 낮에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마주치는 것이 남자 아니면 여자요, 밤에 돌아와 책상을 대하면 곧 펼쳐 보는 것이 오직 책 몇 권일 뿐이다. 그 마음이 근질근질하여 마치 수천 수백 마리의 이(蠱)들이 내 몸의 간(肝)에서 달리고 있는 것만 같다. 나는 또한 위와 장(腸)을 기울여 이 이들을 쏟아내 놓고야 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왕 시를 짓는다면 천지만물 중에서 그 묘하고도 풍부하며 정이 진실한 것을 버리고 내가 다시 어디에 손을 댈단 말인가? 그대는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생각건대 국풍의 시인들은 그 시편들을 지을 때 채주와 식견이 나보다 만만배나 뛰어났겠지만, 그것을 지은 뜻은 대체로 내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 二難

或曰：“子言天地萬物，入乎子出乎子，爲乎子之俚諺，則豈子之天地萬物，獨一個兩個而止耶？何子之俚諺，只及於粉脂裙釵之事耶？古人非禮勿聽，非禮勿視，非禮勿言，亦若是乎？”余蹶然而起改容，跪而謝曰：“先生教之，旨矣。弟子失矣，請亟焚之。然弟子竊有請於先生者，幸先生卒教之，敢問詩傳者，何也？”曰：“經也。”“誰作之？”曰：“時之詩人也。”“誰取之？”曰：“孔子也。”“誰註之？”曰：“集註朱子也，箋註漢儒也。”“其大旨何？”曰：“思無邪也。”“其功用何？”曰：“教民成善也。”“曰周召南何。”曰：“國風也。”“所道者何？”久之曰：“多女子之事也。”“凡幾篇？”曰：“周十有一篇，召十四篇也。”“其不道女子之事者，各幾篇？”曰：“維兔置甘棠等合五篇也已。”

曰：“然歟？異哉！天地萬物之只在於粉脂裙釵者，其自古在昔而然歟？何古之詩人之不憚乎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而然歟？客乎！子欲聞其說乎？是有說焉。夫天地萬物之觀，莫大於觀於人；人之觀，莫妙乎觀於情；情之觀，莫眞乎觀乎男女之情。有是世，有是身；有是身，有是事；有是事，便有是情。是故，觀乎此，而其心之邪正可知，人之賢否可知，其事之得失可知，其俗之奢儉可知，其土之厚薄可知，其家之興衰可知，其國之治亂可知，其世之污隆可知矣。

蓋人之於情也，或非所喜而假喜焉，或非所怒而假怒焉，或非所哀而假哀焉。非樂非愛非惡非欲，而或有假而樂而哀而惡而欲者焉。孰眞孰假，皆不得有以觀乎其情之眞。而獨於男女也，

則卽人生固然之事也，亦天道自然之理也。故綠香紅燭，問聘交拜者，亦眞情也；香閨繡奩，狠鬪忿詈者，亦眞情也；緗簾玉欄，淚望夢思者，亦眞情也；青樓柳市，笑金歌玉者，亦眞情也；鴛枕翡翠，偎紅倚翠者，亦眞情也；霜砧雨燈，飲恨埋怨者，亦眞情也；花底月下，贈佩偷香者，亦眞情也。惟此一種眞情，無處不眞。使其端莊貞一，幸而得其正焉，是亦眞個情也；使其放僻怠傲，不幸而失其正焉，此亦眞個情也。惟其眞也，故其得正者，足可以法焉；惟其眞也，故其失其正者，亦可以戒焉；惟其眞，可以法，眞可以戒也。故其心其人，其事其俗，其土其家，其國其世之情，亦從此可觀，而天地萬物之觀，於是乎，莫眞於觀男女之情矣。

此周召南二十五篇，所以有二十篇也；亦衛風三十九篇，所以有三十七篇也；鄭風二十一篇，所以有十六篇之多者也。亦時之詩人之所以不憚非禮而聽之視之言之也，亦我大成至聖孔子之所以取者也，亦毛鄭紫陽諸醇儒之所以箋註之集註之者也，亦子之所謂思無邪者，教民成善者也。子安知夫非禮而聽，將以非禮勿聽也；非禮而視者，將以非禮而勿視也；非禮而言者，將以非禮勿言也哉？而況乎所以視聽言者，未必盡是非禮也哉！是故，吾則曰：‘詩之正風淫風，非詩也，乃春秋也。’世之所稱淫史，若金瓶梅肉蒲團之流，亦皆非淫史也。原其作者之心，則雖謂之正風淫風，亦無所不可矣。子以爲如何哉？且有說焉。

女子者，偏性也。其歡喜也，其憂愁也，其怨望也，其謔浪也，固皆任情流出，有若舌端藏針眉間弄斧，則人之合乎詩境者，莫女子妙矣。婦人，尤物也。其態止也，其言語也，其服飾也，其居處也，亦皆到盡底頭，有若睡中聽鶯醉後賞桃，則人之具乎詩料者，莫婦人繁矣。噫！雖其妙且繁矣，而使其當之者，若翱翔鳳池，出笙入鏞，則何可暇及於此也；若栖遲碧山，酬猿和鶴，則何足及於此也；若潛心理窟，吟弄乎風月，則何屑及於此也；若逃身麴墨，酣歌乎花柳，則亦何能及於此也？今也，此且不然，彼且不然。問其時也，則煙花太平，熙熙穰穰之好世界也；問其地也，則錦繡長安，紛紛擾擾之大都會也；問其人也，則筆墨多年，涔涔悶悶之閒生涯也。晝而出遊乎街坊，則所逢者，非男則女也；夜而歸對乎床書，則所展者，唯圖書數卷也。其心焉癢癢焉，如千百蟲之遍走乎肝葉也。吾亦不得不傾倒腸胃，出此蟲而後已矣。然而既作之，則天地萬物之間，舍其妙且繁而情眞者，吾復何處焉下手也哉？子其聞之乎，否乎？意者，國風之詩人者，於其作國風之時也，其才與識，固萬萬倍賢乎吾也，而其所以作之之意，則蓋亦與吾不甚相遠也云爾。”

이언(俚諺)

● 아조(雅調)

아(雅)는 멋뜻함이며 올바름이고 조(調)는 곡조이다. 무릇 부인이 아버이를 사랑하고 지아비를 공경하며 집안에서 검소하며 일에 부지런함은 모두 천성(天性)의 멋뜻함이다. 또한 사람 도리의 올바름이다. 그러므로 이 편에서는 아버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한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아조(雅調)로 이름한 것이다. 모두 17수이다.

雅者，常也，正也。調者，曲也。夫婦人之愛其親敬其夫，儉於其家勤於其事者，皆天性之常也，亦人道之正也。故此篇，全言愛敬勤儉之事，以雅調名之。凡十七首。

1.

郎執木雕鴈	낭군님은 나무 기러기 잡고
妾捧合乾雉	저는 말린 꿩을 받들었지요
雉鳴雁高飛	그 꿩이 울고 그 기러기가 높이 날 때까지
兩情猶未已	우리 두 사람 사랑이 끝 없기를.
2.

福手紅絲盃	복스런 손으로 홍사배 들어
勸郎合歡酒	낭군님께 합환주를 권했지요
一盃生三子	첫 잔에는 아들 셋이요
三盃九十壽	세째 잔에는 아흔 살이라.
3.

郎騎白馬來	낭군은 흰 말 타고 오시고
妾乘紅轎去	저는 붉은 가마 타고 갑니다
阿孃送門戒	문에서 보내실 때 어머니 말씀
見舅拜勿遽	시아버님께 절할 때 서두르지 말아라
4.

兒家廣通橋	자라난 집은 광통교인데
夫家壽進坊	시댁은 수진방이라
每當登轎時	매양 가마에 오를 때마다
猶自淚沾裳	나도 몰래 눈물이 치마를 적시네
5.

一結青絲髮	검은 머리를 하나로 맺어
相期到葱根	과뿌리 될 때까지를 서로 기약했지요
無羞猶自羞	부끄러울 것 없는데 오히려 부끄러워
三月不共言	석달 동안 서로 말도 못했답니다
6.

早習宮體書	일찍이 궁체 쓰는 것을 익혀서
異凝微有角	이응자에 살짝 모가 났지요
舅姑見書喜	시부모님께서 글씨 보고 기뻐하시며
諺文女提學	언문 여제학이 났구나 하셨지요
7.

四更起掃頭	4경에 일어나 머리 빗고
五更候公姥	5경에 시부모님께 문안드리지요
誓將歸家後	맹세하건대 친정에 가기만 하면
不食眠日午	먹지도 않고 대낮까지 잠만 잘래요
8.

養蠶大如掌	누에 길러 크기가 손바닥 만해지면
下階摘柔桑	밖에 나가 부드러운 뽕잎을 가려 따지요
非無東海紬	동해주 비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要驗趣味長	경험 삼아 취미로 길러 보고 싶어서
- 9.

爲郎縫衲衣 낭군님을 위해 옷을 꿰메다 보니
 花氣惱儂倦 꽃기운이 나를 나른하게 하네요
 回針摺襟前 바늘 돌려 옷깃 앞에 뽑아 두고는
 坐讀淑香傳 앉아서 <숙향전>을 읽었지요
 10.
 阿姑賜禮物 시어머님께서 주신 예물은
 一雙玉童子 한 쌍의 옥동자였지요
 未敢顯言佩 감히 차겠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結在流蘇裏 유소 속에 묶어 두었지요
 11.
 小婢牕隙來 어린 계집종이 창틈으로 와서
 細喚阿哥氏 작은 목소리로 '아가씨' 하고 부르네
 思家如不禁 집 생각을 참을 수 없다면
 明日送轎子 내일은 가마를 보낸다네
 12.
 艸綠相思緞 초록빛 상사단으로
 雙針作耳囊 쌍침질하여 귀주머니 만들고는
 親結三層蝶 내 손으로 세 겹의 나비를 맺어서
 倩手奉阿郎 예쁜 손으로 낭군께 드렸죠
 13.
 人皆戲鞦韆 사람들은 모두 그네 타며 노는데
 儂獨不與偕 나만 홀로 함께하지 못하네
 宣言臂力脆 팔힘이 약해서라고 말했지만
 恐墜玉龍鉤 사실은 옥비녀 떨어질까 두려워서지
 14.
 包以日紋襪 해 무늬(?) 보자기로 싸서
 貯之皮竹箱 대로 엮은 상자에 쌓아두었다가
 手剪阿郎衣 손수 낭군님의 옷을 마름질하니
 手香衣亦香 손이 향그러워 옷도 향그럽네
 15.
 屢洗如玉手 여러번 씻어 옥 같은 손으로
 微減似花粧 꽃 같은 화장을 조금 줄이네
 舅家忌日近 시댁 제삿날이 가까워지니
 薄言解紅裳 잠시 붉은 치마를 벗어 두어야지
 16.
 眞紅花布褥 진홍빛 꽃무늬 요에다
 鴉靑土袖袂 아청빛 토산 명주 이불이네
 何必雲紋緞 어찌 꼭 구름 무늬 비단에
 四龜鎖黃金 황금 누른 거북 수놓아야 하리
 17.
 人皆輕錦綉 남들은 수놓은 비단옷도 업신여기지만

儂重步兵衣 내게는 거칠게 짠 무명 옷도 소중하다네
 旱田農夫鋤 가문 밭에서는 농부가 호미질하고
 貧家織女機 가난한 집 여인네는 베를 짜는 걸

● 엄조(艷調)

엄(艷)은 아름다움(美)이다. 이 편에서 다룬 것은 대개가 교만(驕慢)·사치(奢侈)·부박(浮薄)·과식(夸飾)의 일이 많다. 그래서 위로는 비록 아(雅)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래로 또한 탕(宕)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엄(艷)'으로 이름한다. 모두 18수이다.

艷者，美也。此篇所言，多驕奢浮薄夸飾之事，而上雖不及於雅，下亦不至於宕，故名之以艷。凡十八首。

1.

莫種鬱陵桃	울릉도 복숭아는 심지 마세요
不及儂新粧	내가 새로 단장한 데는 못 미치니까요
莫折渭城柳	위성의 버들가지는 꺾지 마세요
不及儂眉長	내 눈썹 길이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2.

歡言自酒家	당신은 술집에서 왔다지만
儂言自娼家	나는 당신이 창가에서 온 걸 알아요
如何汗衫上	어째서 속적삼 위에
臙脂染作花	연지가 꽃처럼 묻었나요?
3.

白襪瓜子樣	하이얀 외씨 버전으로
休踏碧粧洞	벽장동엔 가질 말아야지
時體針線婢	유행 따르는 침선비들에게
能不見嘲弄	조롱당하지 않으리
4.

頭上何所有	머리 위에 무엇이 있나
蝶飛雙節釵	나비가 날아가는 두 갈래 비녀
足下何所有	발 아래엔 무엇이 있나
花開錦草鞋	예쁜 꽃 피어 있는 비단신
5.

下裙紅杭羅	속치마는 붉은 향라에
上裙藍方紗	겉치마는 남방사 비단
琮琤行有聲	걸을 때면 옥이 부딪치는 맑은 소리
銀桃鬪香茄	은도와 향가 노리개가 서로 다투네
6.

常日天桃髻	평상시는 천도(天桃) 머리 올리느라
-------	---------------------

粧成腕爲酥 今戴簇頭里 脂粉却早塗	화장을 마치면 팔뚝이 기진맥진했지만 오늘은 머리에 족두리를 얹으니 연지분을 도리어 일찍 바를 수 있네
7.	
且約東隣嫗 明朝涉鷺梁 今年生子未 親問帝釋房	동쪽 집 할미와 약속하기를 내일 아침에 노랑진을 건너자 했네 금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인지 제석님 방에 가 직접 물어보려고
8.	
未耐鳳仙花 先試鳳仙葉 每恐爪甲青 猶作紅爪甲	봉숭아 꽃 피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봉숭아 잎으로 먼저 물들여 보았지요 그러면서 손톱이 파래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손톱이 더 붉게 물들었지요
9.	
織織白苧布 定是鎮安品 裁成角岐衫 光彩似綾錦	곱디 고운 흰 모시베는 바로 진안의 제품이지요 마름질하여 깨끼저고리를 만드니 광채가 능라비단 같네요
10.	
莫觸頂門簪 轉墜簇頭理 恐有人來看 呼農老處子	머리 위 비녀를 건드리지 말아요 족두리가 굴러 떨어지잖아요 누군가 지나다가 보고 나를 노처녀라 하면 어떡해요
11.	
儂有盈箱衣 個個紫纈粧 最愛兒時着 蓮峰粉紅裳	내게는 상자 안에 옷이 가득한데 하나하나가 붉은 수 놓아 단장했지요 그중에도 가장 아끼는 건 어릴 적 입었던 연꽃 봉오리 단장한 분홍 치마지요
12.	
三月松錦緞 五月廣月紗 湖南賣梳女 錯疑宰相家	삼월에는 송금단 사고 오월에는 광월사 사들이니 호남서 온 참빗 장수 여인네가 착각하여 재상의 집인가 하네요
13.	
細吮紅口兒 杻來但空皮 返吹春風入 圓似在房時	조심조심 붉은 파리 씨를 빠는데 빨고 나니 빈 껍질만 남았네 다시 입김을 불어 넣으니 씨가 들었을 때처럼 둥글어지네
14.	
恬嫌中白桂 烈怕梨薑膏	중백계는 너무 달아서 싫고 이강주는 매워서 겁나네요

在腥惟花鮓 해산물 중에는 전복이 으뜸이고
於果六月桃 과일로는 유월의 복숭아가 좋지요

15.

細梳銀魚鬢 은어같은 귀밑머리 곱게 빗고
千回石鏡裏 천 번이나 거울 속을 들여다보지요
還嫌齒太白 너무 하얀 치아가 오히려 싫어서
忙嗽淡墨水 분주히 먹물을 머금어 보네

16.

麩被阿郎罵 잠시동안 낭군님의 꾸지람을 듣고는
三日不肯殮 사흘 동안이나 먹지를 앓았어요
儂佩青玳刀 내가 푸른 옥장도를 차고 있는데야
誰復愼儂言 누가 다시 내 말을 건드릴까요

17.

桃花猶是賤 복숭아꽃은 오히려 천한 듯하고
梨花太如霜 배 꽃은 너무 희어 쌀쌀맞네요
停勻脂與粉 연지와 분을 알맞게 발라서
儂作杏花粧 나는 살구꽃 같은 화장을 하지요

18.

郎愛雙燕美 낭군님은 한 쌍의 제비를 사랑하지만
儂愛燕兒多 나는 새끼제비들 모두를 사랑하지요
一齊生得妙 모두가 한결같이 오묘한 생명을 얻었는데
那個是哥哥 어느 것이 형님인지 알 수가 없네요

● 탕조(宕調)

탕(宕)은 도리에 지나쳐서 가히 금할 수 없음을 이른다. 이 편에서 말한 것은 모두 창기(娼妓)의 일이다. 사람의 정리(情理)가 여기에 이르면 방탕해서 금지하고 통제할 수 없으므로 탕(宕)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는 시경에 '정풍(鄭風)'과 '위풍(衛風)'이 있는 것과 같다. 모두 15수이다.

宕者，佚而不可禁之謂也。此篇所道，皆娼妓之事，人理到此亦宕乎。不可禁制，故名之以宕，而亦詩之有鄭衛也。凡十五首。

1.

歡莫當儂髻 그대여 내 머리에 대이지 마세요
衣沾冬栢油 옷에 동백기름이 묻을까 봐요
歡莫近儂唇 그대여 내 입술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紅脂軟欲流 붉은 연지 부드러워 흐르려고 하니까요

2.

歡吸烟草來 그대가 담배를 피우며 오는데
手持東萊竹 손에는 동래죽을 들었군요

未坐先奪藏 儂愛銀壽福	얕기도 전에 먼저 빼앗아 감추는 건 내가 은수복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3.	
奪儂銀指環 解贈玉扇墜 金剛山畫扇 留欲更誰遺	내 은가락지를 빼앗아 가고는 부채에 달린 옥 선추만 주시는군요 금강산 그림의 부채는 남겼다가 또 누구를 주시려나요
4.	
西亭江上月 東閣雪中梅 何人煩製曲 教儂口長開	"서쪽 정자에는 강위의 달이요 동쪽 누각에는 설중매라" 어떤 이가 번거롭게 이 노래 지어서 나로 하여금 길게 소리뽑게 하나요
5.	
歡來莫纏儂 儂方自憂貧 有一三千珠 纔直十五緡	그대여 오더라도 저를 묶으려 마세요 저는 지금 가난을 근심하고 있어요 삼천개의 구슬이 한 무더기 있어도 겨우 열 다섯 꿩미에 지나지 않는 걸요
6.	
拍碎端午扇 低唱界面調 一時知我者 齊稱妙妙妙	단오 부채로 손바닥을 치면서 나지막하게 계면조를 부르면 한때 나를 아는 이들은 절묘하고 절묘하다 모두가 칭찬했네
7.	
卽今秋月老 年前可佩歸 文君何樣生 儂不慎渠詩	지금은 가을 달처럼 늙었지만 몇 년전엔 웨어차고 돌아갈 만 했다네 탁문군은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고 나는 그 시를 믿을 수 없네
8.	
人疑儂輩媒 儂輩實自貞 逐日稠坐中 明燭度五更	사람들은 우리를 중매하기 꺼리지만 우리도 실제로는 정숙하다오 날마다 뻑뻑한 좌중에서도 촛불을 밝힌 채 오경을 넘기니까요
9.	
不知歡名字 何由誦職啣 挾袖惟捕校 紅衣定別監	그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직함을 읊 수 있나요 소매 좁은 옷이니 포교가 틀림없고 붉은 옷 차림이면 별감이 영락없지요
10.	
聽儂靈山曲 譏儂半巫堂 座中諸令監	내 부르는 영산곡을 듣고서는 날더러 반무당이라 놀리네 그러면 좌중의 나리님들은

豈皆是花郎 모두가 화랑이란 말이구려

11.

六鎮好月矣 육진의 좋은 달비 멀리에 엮고

頭頭點朱砂 머리마다 朱砂로 짐을 찍었네

貢緞鴉青色 아청빛 공단으로

新着加里麻 새 가리마 만들어 썼네

12.

章有後庭花 부르는 노래엔 후정화 있고

篇有金剛山 금강산 같은 곡도 있다네

儂豈桂隊女 내가 어찌 계대 께거리의 계집이리오

不曾解魂還 일찍이 해혼곳 따위 한 적 없는 걸

13.

小俠保重金 작은 협객은 돈만을 중히 여기고

大俠青綉皮 큰 협객은 푸른 수놓은 갖옷이라네

近日花房牌 요사이 화류계에 노는 무리들 가운데

通淸更有誰 通淸할 수 있는 이 다시 누가 있으리오

14.

儂作社堂歌 내가 사당 노래를 부르니

施主盡居士 모든 거사님들이 시주하네요

唱到聲轉處 노랫소리 닿는 곳마다

那無我愛美 나무아미타불[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으리오]

15.

盤堆蕩平菜 상에는 탕평채가 쌓여 있고

席醉方文酒 좌중은 모두가 방문주에 취했구려

幾處貧士妻 어딘가에선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鑊飯不入口 누른밥조차 입에 넣지 못하고 있을텐데

● 비조(俳調)

시경(詩經)에서 말하는 '소아(小雅)'는 원망하면서도 '비(俳)'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비(俳)'는 원망함이 매우 심한 것을 이른다. 무릇 세상의 인정이 아(雅)에서 한번 잃어버리면 염(艷)에 이르고, 염(艷)은 반드시 탕(宕)으로 흘러간다. 세상에 이미 질탕함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원망함이 있게 되고, 원망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심해진다. 이것이 비조(俳調)가 지어진 까닭이다. '비(俳)'는 그 질탕함을 싫어하는 억눌림이니, 이 또한 어지러움이 극심한 데서 치평(治平)을 생각하는 것처럼, 돌이켜 아(雅)의 뜻을 구하려는 것이다. 모두 16수이다.

詩云, “小雅, 怨而不俳.” 俳者, 怨而甚者之謂也. 大凡世之人情, 一失於雅, 則至於艷, 艷則其勢, 必流於宕. 世既有宕者, 則亦必有怨者, 苟怨之則必已甚焉. 此俳之所以有作, 而俳者所以俳其宕也, 則此亦亂極思治, 反求於雅之意也. 凡十六首.

1.

- 寧爲寒家婢 차라리 가난한 집의 종이 될지언정
 莫作吏胥婦 아전의 아내는 되지 마오
 纔歸巡邏頭 순라 시작할 무렵 겨우 돌아왔다가
 旋去破漏後 파루 치자 되돌아간다네
2.
 寧爲吏胥婦 차라리 아전의 아내가 될지언정
 莫作軍士妻 군졸의 아내는 되지 마오
 一年三百日 일년이라 삼백 일에
 百日是空閨 백일은 빈 방 지키기
3.
 寧爲軍士妻 차라리 군졸의 처가 될지언정
 莫作譯官婦 역관의 아내는 되지 마오
 篋裏綾羅衣 상자 속엔 능라비단 옷이 있어도
 那抵別離久 어찌 그리 오랜 이별 값이 되겠어요
4.
 寧爲譯官婦 차라리 역관의 아내가 될지언정
 莫作商賈妻 장사꾼 아내는 되지 마오
 半載湖南歸 반 년만에 호남에서 돌아와서는
 今朝又關西 오늘 아침에는 또 관서 지방으로 간다네
5.
 寧爲商賈妻 차라리 장사꾼 아내가 될지언정
 莫作蕩子婦 난봉꾼 아내는 되지 마오
 夜每何處去 밤이면 밤마다 어디로 나가더니
 今朝又使酒 오늘 아침에는 또 술주정하네
6.
 謂君似羅海 당신을 사나이로 하길래
 女子是托身 여자인 이 몸을 맡겼는데
 縱不可憐我 나를 가엾게 여기지는 못할망정
 如何虐我頻 어찌해서 자꾸 나를 학대하나요
7.
 三升新襪子 석새 베로 새 버선을 만드는데
 縫成轉嫌寬 꿰매다 보니 품이 너무 넓어졌네
 箱中有紙本 상자 속에 종이로 된 버선본 있는데
 何不照憑看 어찌하여 맞추어 보지 않았을까
8.
 間我梳頭時 내가 머리를 빗질하는 사이에
 偷得玉簪兒 옥비녀를 훔쳐 갔다네
 留固無用我 두어도 내게는 소용 없는 거지만
 不識贈者誰 누구에게 주려는 지 알 수 없네요
9.
 亂提羹與飯 밥상의 국과 밥을 어지럽게 집어다가

照我面前擲 내 면전에 대고 팽개치네
自是郎變味 이것은 당신 입맛 달라진 때문이지
妾手豈異昔 내 솜씨야 어찌 옛날과 다를까요

10.

巡邏今散未 순라가 하마 지금쯤 끝났을까
郎歸月落時 서방님은 달 떨어질 때나 돌아오는데
先睡必生怒 먼저 잠들면 틀림없이 화를 낼 게고
不寐亦有疑 안 자고 있으면 또 의심할 게라

11.

使盡闌干脚 긴 다리를 쭉 뻗어서는
無端蹴踘儂 까닭 없이 나를 걷어찼지요
紅頰生靑後 붉은 뺨에 푸른 멍이 들었으니
何辭答尊公 시아버님께는 뭐라고 변명하나요

12.

早恨無子久 오래도록 자식 없음을 일찍이 한탄했는데
無子反喜事 이제 보니 자식 없는 게 차라리 좋은 일
子若渠父肖 자식이 만약 제 아버지를 닮는다면
殘年又此淚 남은 생애가 또 이처럼 눈물뿐이리

13.

丁寧靈判事 정녕 영험하다는 관수 무당이
說是坐三災 내가 삼재에 앉았다고 말하길래
送錢圖畫署 도화서에 돈 보내서
另購大鷹來 특별히 큰 매 그림을 사 오게 했지

14.

一日三千逢 하루에 삼천 번 만나도
三千必盡嚇 삼천 번 모두 꾸짖으시네
足趾鷄子圓 발꿈치가 계란처럼 둥근 것도
猶應此亦罵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욕을 하겠지

15.

嫁時倩紅裙 시집 올 때 입었던 고운 다홍 치마
留欲作壽衣 두었다가 수의를 만들려 했는데
爲郎鬪箋債 낭군의 투전빚 갚으려
今朝淚賣歸 오늘 아침에 울면서 팔고 왔다네

16.

夜汲槐下井 밤에 느티나무 아래 우물에서 물 길다가
輒自念悲苦 문득 생각하니 슬프고 괴로워라
一身雖可樂 이 한 몸이야 편해질 수 있어도
堂上有公姥 堂上에 계신 시부모님 어찌리

사설시조와 여성 형상

0. 도입부 설명용 작품

남진 죽고 우는 눈물 두 저지 느리 흘러
젓 마시 쪼다 흐고 즈식은 보채거든
더눔아 어니 안흐로 계집 되라 흐는다.

#p 625, 5400, 747. <*송이 18> [鄭澈]=/근악/송관/송별/송이/청가/청진

書房님 病 들어 두고 쓸 것 업서
鍾樓 저지 달리 과라 비 스고 감 스고 榴子 스고 石榴 샅다 아츰 아츰 이저고 五花糖을
니저발여고즈[느]

水朴에 술 쪼즈 노코 한숨 계워 흐노라.

#s 1755, 15380, 2200. <*해주 540, 金壽長> [金壽長]=/해주

젓 건너 흰 옷 닦은 사름 준뎡고도 양피왜라
차근 돌드리 건너 큰 돌드리 너머 밥 썬여 간다 그르 썬여 가노고 어허 내 書房 삼고라자
眞實로 내 書房 못 뵈진대 벗의 님이나 되고라자.

#s 2920, 25540, 3652. <*청진 517> []=/병가/원국/원규/원박/원불/원옥/원일/원하/원황/청육/
청진/해악/협률/화악

1. 미혼 여성

高臺 廣室 나는 마다 錦衣 玉食 더욱 마다
銀金 寶貨 奴婢 田宅 비단 치마 大段 장옷 蜜羅珠 것갈 紫芝 鄉織 저고리 쫄머리 石雄黃
오로 다 썬즈리 꺾고

眞實로 나의平生 願흐기는 말 즐흐고 글 즐흐고 얼굴 지자흐고 품즈리 잘흐는 저문
書房이로다.

#s 203, 1740, 249. <*청진 559> []=/가보/고금/동국/병가/시가/영류/원국/원규/원불/원옥/원하/
/청가/청영/청육/청진/해박/해악/협률/화악

都련任 날 보러 흘 제 百番 남아 달너기를
高臺 廣室 奴婢 田畝 世間 汁物을 주마 관쳐 盟誓 | 흐며 大丈夫 | 혈마 헛말 흐랴 이리
저리 조춌씨니 至今에 三年이 다 盡토록 百無一實흐고 밤마다 불너니야 단잠만
씩이오니

自今爲始흐야 가기한 커이와 눈 거러 달회고 님을 빗죽 흐리라.

#s 982, 8530, 1216. <*청육 846> []=/청육

달바즈는 정정 울고 잔씩 속에 속넙 난다

三年 목은 물 가족은 외용지용 우지느디 老處女の 舉動 보소 함박 족박 드더지며 逆情 너여
니른 말이 바다에도 섬이 잇고 콩 팻해도 눈이 잇네 봄 썸즈리 스오나와 同牢宴 첫
스[랑]을 썸마드 허여 뵈네

글르스 月老繩의 因緣인지 일낙 敗락 허여라.

#s 885, 7650, 1085. <*청옥 633> []=/동국/시가/청옥

갈가보다 말가보다 님을 짜라서 안이 갈 수 업네

오날 가고 리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하루 잇흘 스흘 나흘 곱잡아 여들에 八十里를 다
못 갈지라도 님을 짜라서 안이 갈 수 업네 천창만검지中에 부월이 당전홀지라도 님을
짜라서 안이 갈 수 업네 남기라도 향즈목은 음양을 分하야 마주느 잇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자웅을 짜라서 마주느 잇는데

요 너 팔즈는 웨 그리 망골이 되야 간 곳마다 잇을 님 업서셔 나 못 살겠네.

#s 99, 810, 115. []=/악고

새악시 書房 못 마자 애쓰다가 주근 靈魂

건 삼밭 쪽삼 되야 龍門山 開骨寺에 니 색진 늘근 중놈 들뵈나 되얏다가
잇다감 썸 나 그러운 제 슬썸겨나 불가 허노라.

#s 1733, 15200, 2164. <*청진 494> []=/병가/시가/청가/청옥/청진/해일

閼氏네 玉 곱튼 가슴 어이허여 다허나 불써이고

물綿紬 紫芝 勺赤古里 속에 김赤衫 안썸히 되양 존득존득 다히고라자
잇다감 썸 나 붓닐 제 썸힐 뉘를 모리라.

#s 65, 500, 70. <*해일 541> []=/병가/시가/청가/청옥/청진/해박/해일

2. 가족간의 갈등

가마귀 짹짹 아모리 운들 任이 가며 님들 가라

뱃 가난 아들 가며 뵈틀에 안즌 阿只 썸이 가라

지 너머 물 길나 간 며늘 阿只 네나 갈가 허노라.

#p 21, 130, 27. <*청옥 779> []=/청연/청영/청옥

가마귀 짹짹 흥들 사름마다 다 주그라

비록 짹짹 흥들 네 죽으며 내 죽으라

眞實노 죽기곳 죽으면 님의 님이 죽으리라.

#p 20, 120, 23. []=/근악

쇠어마님 며느라기 닛바 벽바홀 구로지 마오

뱃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나모 서근 들걸 휘초리 나[니] 곱치 알살피신

쇠아바님 뱃 빈 썸동 곱치 되종고신 쇠어마님 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곳 부리 곱치

췌족호신 식누으님 당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 곳치 식노란 외곳 곳튼 피췌 누는 아들
흐나 두고

건 밧티 멋곳 곳튼 며느리를 어디를 낫바 흐시논고.

#s 2037, 17710, 2509. <*청진 573> []=/병가/청가/청영/청육/청진

어이려뇨 어이려뇨 식어마님 어이려뇨

쇼대 남진의 밥을 담다가 늦췌죽 잘늘 부르쳐시니 이를 어이혀려뇨 식어마님아 저 아기 하
걱정 마스라

우리도 저머신 제 만히 것거 보왔노라.

#s 2250, 19600, 2771. <*청진 478> []=/동국/병가/청영/청육/청진/해박/해일

저 건너 月仰 바회 우회 밤췌마치 부형이 울면

넛 사름 니론 말이 남의 식앗 되야 百般 巧邪흐는 저른 妾년이 急殺 마자 죽는다 흐데
妾이 對答흐되 안해님겨오셔 망녕된 말 마오 나는 듯즈오니 家翁을 薄待흐고 妾 새움 甚히
흐시는 늘근 안희님 몬져 죽는다데.

#s 2912, 25470, 3645. <*청진 564> []=/병가/악서/영류/원국/원규/원박/원불/원육/원일/원하/
원황/청가/청영/청육/청진/해악/협률/흥비

재 너머 莫德의 어마네 莫德이 자랑 마라

내 품에 드러셔 돌것췌 짜다가 니 곁고 코 고오고 오췌 췌고 放氣 췌니 췌 盟誓개지 모진
내 맞기 하 즌즐흐다 어셔 다려 니거라 莫德의 어마

莫德의 어미년 내드라 發明흐야 니르되 우리의 아기췌이 고림症 비아리와 잇다감 제症 밧기
너나몬 雜病은 어려셔브터 업느니.

#s 2890, 25310, 3569. <*청진 567> []=/병가/영류/청육/청진

3. 남편과 아내

술 붓다가 췌 골케 붓는 妾과 妾한다고 식오는 안희

헌 비에 모도 시리다가 췌오리라 가업슨 바다

風浪에 놀나 췌닷거든 卽時 다려 오리라.

#s 1981, 17280, 2464. <*병가 1109> []=/병가/청가/청육/흥비

콩 밧티 들어 콩 녀 췌어 먹는 감은 송아지 암으리 췌즌들 그 콩 녀 두고 저 어디 감여
니불 아레 든 녀를 발로 툭 차박 미적미적흠여 어셔 나가라 혼들 이 안인 밤의 날 브리고
제 어드로 같이

암아도 췌흐고 못 말을 쓴 녀이신가 흐노라.

#s 3468, 30410, 4299. <*해일 545> []=/가보/대동/동국/병가/시가/원가/원국/원규/원박/원불/
원육/원일/원하/원황/청가/청연/청영/청육/청진/해박/해악/해일/협률/화악/흥비

月黃昏 계여 간 날에 定處 업시 나간 녀이

白馬 金鞭으로 어디 가 도니다가 酒色에 췌기여 도라올 췌 니것논고

獨宿孤房호여 長相思 淚如雨에 轉輾不寐 호노라.

#s 2558, 22320, 3147. <*청진 475> []=/가보/남태/동국/병가/약서/원가/원국/원규/원불/원육/
원일/원하/청영/청육/청진/해악/협률/화악

青天 구름 밧기 노피 썰는 白松骨이

四方 千里를 咫尺만 너기논디

엇더타 쇠궁척 두져 엇먹는 올히는 제 집 門地方 넘나들기를 百千里만 너기더라.

#s 3294, 28890, 4054. <*청진 495> []=/가보/동국/병가/약서/영류/원국/원규/원박/원불/원육/
원일/원하/원황/청가/청육/청진/해악/해일/협률/화악

石崇의 累鉅萬財와 杜牧之의 橋滿車 風采라도

밤일을 흘 저기 제 연장 零星호면 쑤자리만 자리라 괴 무서시 貴홀소나

貧寒코 風度 | 埋沒홀지라도 제 거시 무즙호여 내 것과 如合符節곳 호면 괴 내 님인가
호노라.

#s 1775, 15560, 2221. <*청진 546> []=/병가/시가/영류/청가/청육/청진/해박/해일

白華山 上上頭에 落落長松 휘여진 柯枝 우회

부형 방귀 썬 殊常호 옹도라지 길죽 넙죽 어틀머틀 미몽슈로 호거라 말고 님의 연장

그러코라자

眞實로 그러곳 흘작시면 벗고 굴물진들 성이 므슴 가소리.

#s 1390, 12160, 1738. <*청진 545> []=/병가/시가/영류/원국/원규/원불/원육/원일/원하/청육/
청진/해악/해일/협률/화악

엷고 검고 괴 큰 구레나룻 그것조차 길고 넓다

잡지 아닌 놈 밤마다 비에 올라 죠고만 구멍에 큰 연장 너허 두고 흘근 활적 흘 제는

愛情은 크니와 泰山이 덩누로는 듯 존 放氣 소리에 젓 먹던 힘이 다 쓰이노미라

아르나 이 놈을 다려다가 百年 同住호고 永永 아니 온들 어늬 개썰년이 쇠앗 새움 호리오.

#s 2287, 19930, 2830. <*청진 569> []=/병가/시가/원국/원규/원박/원불/원육/원일/원하/청육/
청진/해악/협률

술이라 호면 물 물 혀 듯 호고 飲食이라 호면 현 물등에 서리황 다앗 듯

兩 水腫 다리 잡조지 팔에 활기눈 안팎 쑤장이 고자 남진을 만석둥이라 안쳐 두고 보라

窓 밧기 통메 장스 네나 즈고 니거라.

#s 2003, 17430, 2481. <*병가 1062> []=/병가/청육

밧남진 그 놈 紫驄 병거지 쓴 놈 소딕 書房 그 놈은 샷병거지 쓴 놈 그 놈

밧남진 그 놈 紫驄 병거지 쓴 놈은 다 뵈 눈에 정어이로되

밤中만 샷병거지 쓴 놈 보면 실별 본 듯 호여라.

#s 1256, 11040, 1576. <*청육 830> []=/청육

밧남편 廣州 | ㅼ리뵈 장스 쇼대난편 朔寧이라 닛뵈 장스

눈경의 거론 님은 쑤쑤 쑤두려 방망치 장스 돌호로 가마 흥도깨 장스 빙빙 도라 물레 장스

우물전에 치다라 근댕근댕 헝다가 워렁충창 풍 썩저 물 돕복 썩너는 드레곡지 장스
어디 가 이 얼굴 가지고 죠리 장스를 못 어드리.

#s 1257, 11050, 1577. <*청진 565> []=/가보/근악/동국/병가/시가/시철/악서/영류/원국/원규/
원불/원육/원일/원하/청가/청연/청영/청육/청진/해박/해악/협률/화악/흥비

4. 그리움, 기다림

窓外 三更 細雨時에 夜半 孤燈 잠인들 이틀넉가
靑燈을 도도 켜 후 綠衣琴 것희 안고 相思曲 한 曲調를 한숨 석거 타노라니 任의 生覺 더욱
간절하야 任 가신 곳 바라보니 蒼天의 織女星은 눈물을 먹음은 듯 耿耿이 잇서도 一年
一度면 만날 날이 잇것마는 나는 어이 못 가시고
無情하고 야속한 任이여 그대 生覺 하노라고 이 내 귀비 肝腸 석으나 석은 눈물 끈칠 날이
전혀 업다.

#s 4820, 0, 3857. []=/시평

치야다 보면 풀은 하날이요 나려다 보면 白沙地 쌍이로다
계 누을 바라고 살나 헝오 무정헝다 무정헝다 漢陽 郎君이 無情헝다 이 준약헝 인싱을
바리고 어딴로 가오 新情도 보헝시련이와 舊情인들 이질손가 嚴冬雪寒에 궤 밭 물어
던진 드시 獨宿空房 헝리로다
준약헝 몸이 스러질가 헝노라.

#p 4943, 0, 4270. <*해일 638> []=/해일

님이 오마 헝거늘 저녁 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 나서 大門 나가 地方 우회 치드라 안자 以手로 加額헝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山
브라보니 거머뿔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즈 디 므른 디 곱희지 말고 워렁충창 건너
가셔 情옛 말 헝려 헝고 궂눈을 흘긔 보니 上年 七月 사혼날 곱가 벽긴 주추리 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거다

모쳐라 밤일쇠만정 헝혀 낮이런들 늣 우일 번 헝패라.

#s 865, 7520, 1059. <*청진 580> []=/고금/근악/병가/시가/청가/청연/청영/청진

다려 가거라 쓸어 가거라 나를 두고선 못 가느니라 女必은 從夫릿스니 거저 두고는 못
가느니라
나를 바리고 가라 헝거든 靑龍刀 잘 드는 칼노 요춤이라도 헝고서 아리 토막이라도 가져
가소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바리고 못 가느니라 나를 바리고 가라 헝거든
紅爐火 모진 불에 살을 터이면 살우고 가소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그저 두고는 못
가느니라 그저 두고서 가라 헝거든 廬山 瀑布 흘으는 물에 풍덩 더지기라도 헝고서
가쏘 나를 바리고 가는 님은 五里를 못 가서 발病이 나고 十里를 못 가서 안즌방이
되리라

춤으로 任 싱각 그리워서 나 못 살겠네.

#s 870, 7560, 1064. []=/악고

독수공방이 심난헝기로 님을 짜라서 갈가 보고나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며 글피 가며 나흘 곱집어 여들에 팔십리 석들 열흘에 단천리
 가고 붙어진 다리를 팔으르 쓸면서 천창 만검지중에 부월이 당전홀지라도 님을 짜라서
 아니 갈 수 업네 히 가고 들 가고 날 가고 시 가고 님씩지 망종 가면 요 세상 빅년을
 널 밋고 사노 석신이라고 돌에다 접을 흐며 목신이라고 고목에다 접을 흐며 어영도
 갈메기라고 창파에다 지접을 흘가
 접홀 곳 업고 속넛 맛는 친고 업셔 나 못 살갓네.
 #s 1003, 8700, 1246. []=/약고

5. 육망의 희극

礪山 端川 석갈나무 입도 새로 속넛 나니
 초마 쓴 졸나 매고 前에 흐든 行實 버리자 하얏드니
 밤이면 궁벽국새 우는 소리에 바릴지 말씨.
 #s 2309, 20120, 2852. []=/약고

니르랴 보자 니르랴 보자 내 아니 니르랴 네 남진드려
 거죽 거스로 물 깃는 체 흐고 통으란 나리와 우물전에 노코 쏘아리 버셔 통조지에 걸고
 건넌 집 짜근 金書房을 눈 기야 불러 너여 두 손목 마조 덩석 쥐고 슈근슈근 말흐다가
 삼 밧트로 드러가셔 므스 일 흐던 지 존 삼은 쓰러지고 굴근 삼대 밧만 나마 우즙우즙
 흐더라 흐고 너 아니 니르랴 네 남진드려
 저 아회 입이 보도라와 거죽말 마라스라 우리는 므을 지서미라 실삼 죠곰 키더니라.
 #s 2631, 22970, 1013. <*청진 576> []=/가보/고금/근약/동국/병가/약서/원국/원규/원불/원육/
 원일/원하/청가/청연/청영/청육/청진/해약/협률/화약/흥비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요 개 궂치 알미오라
 뉘운 님 오며는 소리를 회회 치며 썩락 나리썩락 반겨서 내똥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베통베통 브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라가게 혼다
 원 밥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
 #s 150, 1290, 179. <*청진 547> []=/고금/병가/청진

기를 열아문 기르되 요 기것치 알뉘우라
 뉘운 님 오랑이면 소리를 회회 치며 반기워 너똥고 고운 님 올닥시면 무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
 도로 가게 흐니 요 죄오리 암키
 門밧게 기장스 외지거든 찬찬 동혀 주리랴.
 #s 151, 1291, 0. <원국 639> []=/원국/원규/원박/원불/원육/원일/원하/원황/해약/협률/화약

飛禽走獸 삼긴 中에 닭과 개는 씨 두다려 업시홀 즈싱
 碧紗窗 깃흔 밤에 품에 드러 잠든 님을 저른 목 느르히 회회쳐 우러 니러나게 흐고 寂寂 重門 왔
 는 님을 무으락 나으락 쌍쌍 즈져 도라 가게 흐니

門前에 둘 기 장스 웨지거든 찬찬 동혀 주리라.

#s 1537, 13500, 1924. <*청옥 672> []=/시가/원국/원규/원박/원불/원육/원일/원하/원황/청육/
해악/협률/홍비

白髮에 환양 노는 년이 저문 書房 흐라 하고

센 머리에 墨漆하고 泰山 峻嶺으로 허위허위 너머 가다가 과그른 쇠나기에 흰 동정

거머지고 검던 머리 다 희거다

그르사 늘근의 所望이라 일락 배락 호노매.

#s 1354, 11870, 1701. <*청진 507> []=/병가/시가/영류/원국/원규/원박/원불/원육/원일/원하/
청가/청연/청영/청육/청진/해악/협률/홍비

6. 숨기는 情事

웨 와썸나 웨 와썸나 나 홀노 자는 방에 웨 와썸나

오기는 왔거이와 자취 업시 잘 단녀 가오

갓득에 말 만코 탈 마는 집안에 모다깃녕 날까.

#s 2560, 22340, 3149. <남태 186> []=/남태/시조

중놈도 사름이 냥햐야 자고 가니 그림드고

중의 송낙 나 베읍고 내 족도리 중놈 베고 중의 長衫은 나 덤습고 내 치마란 중놈 덤고

자다가 썸드르니 돌희 스랑이 송낙으로 하나 족도리로 하나

이튼날 흐던 일 싱각하니 흥글항글 하여라.

#s 3037, 26580, 3759. <*청진 552> []=/병가/청가/청육/청진/홍비

窓 밧기 어른어른 흐느니 小僧이울소이다

어제 저녁의 動鈴흐라 왔든 둥이울느니 關氏님 즈는 房 독도리 버셔 거는 말 그턱 이 닌

소리 송낙을 길고 가자 왓소

저 둥아 걸기는 걸고 갈지라도 後人말이나 업게 하여라.

#s 3109, 27200, 3833. <*병가 937> []=/동국/병가/원국/원규/원불/원육/원일/원하/청육/해악/
협률/화악/홍비

간밤의 자고 간 썸초 언의 고개 넘어 어드미나 머므는고

主人님 暫間 더새와지 糧食 물콩 내읍새 동희 銅爐口 되박 斫刀를 내읍소 하고 냇짓 나근에

되엿는고

情이야 무엇시 重호리만은 내 못 니저 호노라.

#s 90, 720, 99. <*해일 550> []=/가보/청육/해일

스람마다 못할 것은 남의 님씨다 情 드려 닛코 말 못하니 익연하고 통스정 못하니 나

죽깃구나

숫이라고 숫어를 내며 님히라고 홀터를 닛며 가지라고 썸거를 닛며 희동청 보라미라고 제

밥을 가지고 곳여를 벨가 다만 秋波 여러 번에 남의 님을 후려를 내여 집신 간발하고

안인 밤중에 월장 도주하야 담 넘어 갈 제 식이비 귀떡쟁이 잡녀석은 남의 속너는
조금도 모르고 안인 밤중에 밤스람 왔다고 소리를 칠 제 요 너 간장이 다 녹는구나
춤으로 네 모양 그리워서 나 못 살게네.

#s 1567, 13760, 1956. []=/악고

7. 말장난: 장사치와 여인의 문답

딧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귀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 內肉 兩目이 上天 前行 後行 小아리 八足 大아리 二足 靑醬 으스스 흥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흥럼은.

#s 972, 8440, 1200. <*청진 532> []=/남태/병가/시가/시여/영류/청가/청육/청진/해박

딧들에 나모들 사오 저 장스야 네 나모 갑시 언매 웨는다 사자
뿌리 남게는 흥 말 치고 검주 남게는 닷 되를 쳐서 습하야 해면 마 닷 되 맞습너 샷 대혀
보으소 잘 붓습느니

흥 적곳 사 썩혀 보며는 미양 사 썩히자 흥리라.

#s 971, 8430, 1198. <*청진 535> []=/가보/근악/남태/병가/시가/청가/청연/청육/청진/해박/해
일

딧들에 잘잇 등미 사오 저 장스야 네 등미 갑 엇되나 가나 사 까라 보자
두 疋 쏘 등피 흥 疋 맞썩네 흥 疋이 못 쏘이 半 疋 맞소 半 疋 안이 맞썩네 하 우은 말
마소

흥적 곳 샷 식라 보심연 每樣 솟 식자 흥오리.

#s 977, 8480, 1203. <*해일 547> []=/청가/청육/해박/해일

딧들에 丹著 丹술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호 몇 가지나 웨는이 사자
알애燈磬 옷燈磬 길燈磬 즈율이 수著 국이 동희 銅爐口 가옴네 大牧官 女妓 小各官 酒湯이
本是 쓸어져 물 조로로 흘르는 구머 막키여

장스야 막킴은 막혀도 後入말 업씨 막혀라.

#s 973, 8450, 1199. <*해일 583> []=/가보/근악/남태/대동/동국/병가/시여/청육/해일

딧들에 臙脂라 粉들 사오 저 장스야 네 臙脂粉 곱거든 사자
곱든 비록 안이되 불음연 네 업든 嬌態 절로 나는 臙脂粉이외
眞實로 글어흥 량이면 흥 속씨슬 풀만정 대엿 말이나 사리라.

#s 975, 8460, 1201. <*해일 543> []=/병가/청가/청육/해박/해일

閼氏네 더위들 스시오 일른 더위 느즌 더위 여러 히포 목은 더위
五六月 伏더위에 情의 님 만나이셔 달 밝은 平床 우희 춘춘 감계 누엇다가 무음 일
흥엿던지 五腸이 煩熱흥고 구슬쌘 흘니면서 혈씩이넌 그 더위와 冬至쌀 긴긴 밤의 고은
님 다리고 다스흥 아름목과 돛가운 니불 속의 두 몸이 흥 몸 되야 그리 저리 흥니

手足이 답답하며 목궁이 타올 적의 옷목의 찬 속용을 벌떡벌떡 켜난 더위를 關氏네
사려거든 소견티로 스오시쇼
당스야 네 더위 여럿 申의 님 만나는 두 더위야 뉘 아니 조아히리 남의게 파지 말고 너게
부딪기로 시쇼.

#s 64, 490, 74. <*청옥 702> [申獻朝]=/봉래 []=/시가/청옥

朴趾源, 열녀 함양 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병서(并序)

제(齊) 나라 사람의 말에, “열녀는 지아비를 두 번 얻지 않는다.” 하였으니,¹⁾ 이를테면 《시경》 용풍(鄘風) 백주(柏舟)의²⁾ 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개가(改嫁)한 여자의 자손은 정직(正職)에는 서용(敍用)하지 말라.”고 하였으니,³⁾ 이것이 어찌 일반 백성과 무지한 평민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 마침내 우리 왕조 400년 동안 백성들이 오랫동안 앞장서 이끄신 임금님들의 교화에 이미 져서, 여자는 귀하든 천하든 간에, 또 그 일족이 미천하거나 현달했거나 간에 과부로 수절하지 않음이 없어 드디어 이로써 풍속을 이루었으니, 옛날에 칭송했던 열녀는 오늘날 도처에 있는 과부들인 것이다. 심지어 촌구석의 어린 아낙이나 여염의 젊은 과부와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가 과부의 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개가하라며 핍박하는 일도 있지 않고 자손이 정직에 서용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도 아니건만, 한갓 과부로 지내는 것만으로는 절개가 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여, 왕왕 한낱의 훗불처럼 무의미한 여생을 스스로 끝내 버리고 남편을 따라 죽기를 빌어,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뛰어들어 죽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목매달아 죽기를 마치 낙토를 밟듯이 하니, 열녀는 열녀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예전에 이름난 벼슬아치 형제가 있었다. 장차 남의 청환(淸宦)의 길을 막으려 하면서 어머니 앞에서 이를 의논하자,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이를 막으려 하느냐?” 하고 물었다.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 윗대에 과부된 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바깥의 논의가 자못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그 일은 규방의 일인데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하자, 아들이 대답하기를, “풍문(風聞)이 그렇습니다.” 하였다.

어머니는 말하였다.

“바람이란 소리는 있으되 형체가 없다. 눈으로 보자 해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으로 잡아 봐도 잡히는 것이 없으며, 허공에서 일어나서 능히 만물을 들뜨게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무형(無形)의 일을 가지고 들뜬 가운데서 사람을 논하려 하느냐? 더구나 너희는 과부의 자식이다. 과부의 자식이 오히려 과부를 논할 수 있단 말이냐? 앓거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고는 품고 있던 엽전 한 닢을 꺼내며 말하였다.

“이것에 테두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에 글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드리우며 말하였다.

“이것은 너희 어미가 죽음을 참아 낸 부적이다. 10년을 손으로 만졌더니 다 닳아 없어진 것이다. 무릇 사람의 혈기는 음양에 뿌리를 두고, 정육은 혈기에 모이며, 그리운 생각은 고독한 데서 생겨나고, 슬픔은 그리운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다. 과부란 고독한 처지에 놓여 슬픔이 지극한 사람이다. 혈기가 때로 왕성해지면 어찌 혹 과부라고 해서 감정이 없을 수 있겠느냐?

가물거리는 등잔불에 제 그림자 위로하며 홀로 지내는 밤은 지새기도 어렵더라. 만약에 또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거나 창에 비친 달빛이 하얗게 흘러들며, 낙엽 하나가 뜰에 지고 외기러기

1) 제 나라의 현자 왕축(王蠋)이 제 나라를 침략한 연(燕) 나라가 자신을 장수로 기용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정숙한 여자는 지아비를 두 번 얻지 않는다. [忠臣不事二君 貞女不更二夫]”는 말을 남기고 자결했다. 《史記 卷82 田單列傳》

2) 백주(柏舟): 《시경》 용풍(鄘風)의 편명으로, 위(衛) 나라 세자 공백(共伯)이 일찍 죽고 그의 아내인 공강(共姜)이 절개를 지키려 하였는데, 그녀의 부모가 이를 막고 재가를 시키려 하자 공강이 자신의 의지를 노래한 시라고 한다.

3) 정직(正職)은 문무반(文武班)의 정직 벼슬을 가리킨다. 《경국대전》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조에 “실행(失行)한 부녀와 재가(再嫁)한 부녀의 소생은 동반직(東班職)과 서반직(西班職)에 서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은 정조(正祖) 9년(1785) 《경국대전》과 《속대전(續大典)》 등을 통합하여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하늘을 울고 가며, 멀리서 닭 울음도 들리지 않고 어린 종년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면 이런저런 근심으로 잠 못 이루니 이 고충을 누구에게 호소하랴.

그럴 때면 나는 이 엽전을 꺼내 굴려서 온 방을 더듬고 다니는데 둥근 것이라 잘 달아나다도 딱진 데를 만나면 주저앉는다. 그러면 내가 찾아서 또 굴리곤 한다. 밤마다 늘상 대여섯 번을 굴리면 먼동이 트더구나. 10년 사이에 해마다 그 횟수가 점차 줄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때로는 다섯 밤에 한 번 굴리고, 때로는 열흘 밤에 한 번 굴렸는데, 혈기가 쇠해진 뒤로는 더 이상 이 엽전을 굴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열 겹이나 싸서 20여 년 동안이나 간직해 온 것은 엽전의 공로를 잊지 않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말을 마치고서 모자는 서로 붙들고 울었다. 당시의 식자(識者)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말로 열녀라고 이를 만하다.”고 했다.

아! 그 모진 절개와 맑은 행실이 이와 같은데도 당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이름이 문혀 후세에도 전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부가 의를 지켜 개가하지 않는 것이 마침내 온 나라의 상법(常法)이 되었으므로, 한번 죽지 않으면 과부의 집안에서 남다른 절개를 보일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안의 현감(安義縣監)으로 정사를 보던 이듬해 계축년(1793, 정조 17)의 어느 달 어느 날이다. 밤이 새려 할 무렵 내가 잠이 살짝 깬을 때, 마루 앞에서 몇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다가 또 탄식하고 슬피하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급히 알릴 일이 있는 모양인데, 내 잠을 깨울까 두려워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높여, “닭이 울었느냐?” 하고 묻자 좌우에서, “이미 서너 머리 울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밖에 무슨 일이 있느냐?”

“통인(通引)⁴⁾ 박상효(朴相孝)의 조카딸로서 함양(咸陽)으로 출가하여 일찍 홀로 된 이가 그 남편의 삼년상을 마치고 약을 먹어 숨이 끊어지려 하니, 와서 구환해 달라고 급히 연락이 왔사옵니다. 그런데 상효가 마침 숙직 당번이라 황공하여 감히 사사로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빨리 가 보라고 명하고, 늦을뉘에 미처서 “함양의 과부가 소생했느냐?”고 물었더니, 좌우에서 “이미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길게 탄식하며 “열녀로다, 그 사람이여!”라고 하고 나서 못 아전들을 불러 놓고 물었다.

“함양에 열녀가 났는데, 본시 안의(安義) 출신이라니 그 여자의 나이가 방금 몇 살이나 되고, 함양의 누 집에 시집갔으며, 어려서부터 심지와 행실은 어떠했는지 너희들 중에 아는 자가 있느냐?”

그러자 못 아전들이 한숨지으며 나아와 아뢰었다.

“박녀(朴女)의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 아전입니다. 그 아버 이름은 상일(相一)이온대, 일찍 죽었고 이 외동딸만을 두었습니다. 어미 역시 일찍 죽어서 어려서부터 그 조부모에게서 자랐사온대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열아홉 살이 되자 출가하여 함양 임술증(林述曾)의 처가 되었는데, 그 시댁 역시 대대로 고을 아전입니다. 술증이 본디 약하여 한 번 초례(醮禮)를 치르고 돌아간 지 반년이 채 못 되어 죽었습니다. 박녀는 지아비상을 치르면서 예(禮)를 극진히 하였고, 시부모를 섬기는 데도 머느리된 도리를 다해 두 고을의 친척과 이웃들이 그 어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오늘 이러한 일이 있고 보니 과연 그 말이 맞습니다.”

어느 늙은 아전이 감개하여 말하였다.

“박녀가 아직 시집가기 몇 달 전에 ‘술증의 병이 이미 골수에 들어 부부 관계를 맺을 가망이 만무하다 하니 어찌 혼인 약속을 물리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조부모가 넌지시 박녀에게 일러 주었으나 박녀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날짜가 박두하여 여자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술증의 상태를 엿보게 하였더니, 술증이 비록 용모는 아름다우나 노점(勞漸 폐결핵)에 걸려 툭툭거리며 버섯이 서 있는 듯하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으므로, 집안에서는 모두 크게 두려워하여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녀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전날 재봉한 옷들은

4)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던 아전.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누구의 옷이라 불렀던 것입니까? 저는 처음 지은 옷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기에 집안에서는 그 뜻을 알고 마침내 기일을 정한 대로 사위를 맞이했으나, 비록 명색은 혼례식을 치렀다 하나 사실은 끝내 입혀보지 못한 옷만 지켰다고 합니다.”

얼마 후 함양 군수인 윤광석(尹光碩) 사또가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느낀 바가 있어 열부전(烈婦傳)을 지었고, 산청 현감(山淸縣監) 이면제(李勉齊) 사또도 박녀를 위해 전(傳)을 지었으며, 거창(居昌)의 신돈항(愼敦恒)은 후세에 훌륭한 글을 남기고자 하는 선비였는데, 박녀를 위하여 그 절의의 전말을 엮었다.

생각하면 박녀의 마음이 어찌 이렇지 않았으랴! 나이 젊은 과부가 오래 세상에 남아 있으면 길이 친척들이 불쌍히 여기는 신세가 되고, 동리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하는 대상이 됨을 면치 못하니 속히 이 몸이 없어지는 것만 못하다고.

아! 슬프구나. 성복(成服)을 하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장사 지내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요, 장사를 지내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소상(小祥)이 있었기 때문이요, 소상을 지내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대상(大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상이 끝이 났으니 상기(喪期)가 다한 것이요, 한날 한시에 따라 죽어 마침내 처음 뜻을 완수했으니 어찌 열녀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연암집 제1권, 연상각선본(煙湘閣選本), 번역은 한국고전국역원>

< NAOKOL 워크샵에서의 자료 활용 >

- * 6.18: 별첨 논문 <조선 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 모티프와, ‘연애 시대’의 전사>를 간추려 발표 하면서 <‘불안한 사랑’ 모티프 시조 추가 자료> 중 약간편을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 * 6.20: 이옥의 <이언인, 이언>과 <사설시조의 여성 형상> 작품들을 발췌하여 읽으면서, 이들이 조선 후기 문학에서 지니는 상관적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별첨 논문 <사설시조의 애욕과 성적 모티프의 제조명>은 여기에 일부 참조되는 보조자료입니다. 이 논문에 실린 <금강산 조리장사>와, <열녀함양박씨전>도 읽어 주십시오. Robert James Waller의 *The Bridges of Madison County*도 대조적으로 거론될 수 있으니 영화나 소설을 보아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